투데이 칼럼

북한 실세들의 생존전략

정 복 규
논설위원

지난 4월 25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양 옆을 군부 인사가 차지했다. 왼쪽은 박정천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오른쪽은 정치국 상무위원 겸 노동당 비서가 각각 자리했다.

'좌(左)정천, 우(右)병철'의 모습이었다. 눈길을 끈 것은 이병철의 등장이다. 그는 지난 10개월 동안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신변 이상설이 나돌기도 했다.

그런데 조선인민혁명군(빨치산 부대) 창건 90주년 행사에 참석했다. 화려한 복귀를 신고한 셈이다. 옷차림도 화려했다. 훈장이 주렁주렁 달린 군복 차림으로 나타난 것이다.

특히 김정은 바로 옆을 지키며 권력 실세로서의 건재를 과시했다. 이병철은 지난2021년 7월 김정은이 주재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비상방역에 대한 당의 중요 결정 집행을 태공(게을리 함)했다'는 이유로 모든 직위에서 전격 해임됐다.

당시 김정은 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 사업에서 과오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이병철은 재기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최고 핵심 지위인 정치국 상무위원 자리를 박정천이 차지함으로써 완전히 밀린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이병철은 공군사령관 출신으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프로젝트 등 군수공업 분야를 관장했다.

김정은의 신임을 얻은 이병철은 한동안 승승장구했다. 김정은과 맞담배를 피우는 장면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그가 김정은의 부인 이설주의 아버지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근거 없는 추정에 불과했지만 그만큼 이병철의 위세가 당당했다. 이병철의 사례처럼 북한 권력 내부에서는 벼락출세와 책벌, 해임이나 강등이 수시로 이뤄진다.

군부 인사의 경우 대장 계급에서 두세 계단 떨어지거나 심지어 대좌(남한 대령급)로 강등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물론 반대 경우도 있다.

모두 최고사령관인 김정은의 말 한마디나 그 때 그 때의 기분이나 판단에 따라 이뤄진다. 2013년 12월에 있었던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당시 대장 계급) 처형처럼 극단적인 경우도 있다.

결정적 과오를 저지른 경우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 혹은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여생을 마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노동당과 군부의 핵심 인사의 경우는 다르다.

상당수는 최고지도자의 배려에 의해 복권되거나 다시 출세가도를 걷는다. 결정적 요인은 김정은의 신임이다. 완전히 식었느냐 여부다.

마원춘 국무위원회 설계국장의 경우 2014년 11월 숙청돼 가족과 함께 북부 양강도 협동농장으로 추방됐다. 평양 순안비행장 리모델링 공사에서 인테리어를 '주체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다.

그러나 이듬해 10월 마원춘은 복권됐다. 그 뒤 마원춘은 김정은을 밀착 수행하며 최고지도자의 관심 프로젝트인 '1호 건설 사업'을 도맡고 있다.

재기에 성공한 권력 실세들의 경우 혁명화 과정에서 불만 토로나 문제 제기 없이 묵묵히 반성하는 모습과 최고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을 과시하는 공통점이 있다.

완전히 내쳐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때를 기다려야 한다. 김정은은 노동당의 조직을 통해 혁명화 상황 등을 소상하게 보고 받고 재기용이나 복권을 결정한다.

김영남(94)은 숙청이나 강등 같은 재앙을 겪지 않은 인물이다. 그는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代)에 걸쳐 출세가도를 달린 전설적 인물로 꼽힌다.

외교부 과장을 시작으로 외교부장과 당 국제비서 등의 요직을 거쳤다. 국가수반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정점으로 고령으로 물러났다. 그런데도 주요 행사 때 원로 자격으로 참석한다.

북한에서 '2인자' 혹은 권력 실세로 살아간다는 건 살얼음판을 걷는 일이다. 철저한 감시 체제와 통제 속에서 절대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 무심코 불만을 토로했다가 도청에 걸려 가족까지 포함해 멸문지화를 당한다. 공개처형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

사 설

보이스피싱 기승

보이스피싱이 여전히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단속이 강화되고 있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는 갈수록 교묘해지고,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피해자들의 돈을 챙겨온 보이스피싱 조직의 60대 수거책이 전주에서 또 구속됐다.

최근에는 금융권의 금리가 오르는 것을 이용해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현금을 가로채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주에 사는 어느 40대 여성은 최근 한 통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기존에 받은 대출 금리를 정부 지원을 통해 1%대의 낮은 금리로 갈아타게 해준다는 내용이었다.

귀가 솔깃해 전화를 걸어보니 상담 직원은 대출금 일부를 먼저 갚아야 한다면서 돈을 주면 싼 대출로 바꿔주겠다고 꼬드겼다.

대출이자를 조금이라도 줄여볼 생각에 약속 장소에 나간 이 여성은 자신을 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한 60대 남성에게 1천800만 원을 건넸다.

그런데 이 남성은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낸 현금 수거책이었다. 남성은 피해자에게 받은 돈다발을 자동화기기에 쌓아두고 송금을 하던 중 이를 수상히 여긴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남성은 광주와 대전에서도 같은 수법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은 채권추심 업무인 줄 알았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 여성에게 은행에서의 행동 요령까지 일러주었다. 고객에 대한 은행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직업이 주부라면 급히 아들 학자금 보내야 될 일이 있다고 말하게 하는 등 맞춤형이다.

경찰은 최근 금리가 급등하면서 높은 대출 금리에 허덕이는 서민들을 노린 전화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일상회복 지원금 과다 문제

김제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모든 시민에게 1백만 원씩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는 김제시장이 6.1지방선거 때 공약했던 내용이다. 그러나 김제시가 그만한 재정 여력이 있느냐,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김제의 주민등록인구는 8만 1천 명 정도다. 1백만 원씩 계산하면 소요 예산만 8백10억 원이 넘는다.

김제시는 정부에서 받는 보통교부세와 지방세 수입 등으로 재원을 마련한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제시의 재정은 넉넉한 형편이 아니다.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 즉 재정 자립도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10.1%로, 전북 14개 시군의 평균 재정 자립도 13.5%에도 못 미친다.

전국 시 단위 지역과도 비교하면 전체 평균 27.9%의 3분의 1 수준이다. 선심성 논란이 제기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다른 자치단체도 비슷한 지원들을 하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했던 두 해 전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에서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왔다. 정읍은 모든 시민에게 20만 원씩, 고창은 주민 한 명당 10만 원에, 가구당 10만 원을 더해 재난지원금을 주고 있다.

김제, 정읍, 고창 모두, 단체장이 새로 바뀐 공통점을 갖고 있다.

초선 단체장은 아니지만, 임실군도 모든 군민에게 재난지원금 20만 원씩 주고 있다. 정읍 9.4, 고창 8.5, 임실 8.3% 등 이들 지역의 재정자립도 역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지역과 주민 형평성을 고려해 재난지원금 지급에 분명한 기준은 있어야 한다. 선심성 지원을 늘려 재정 건전성을 심하게 해칠 경우 부담은 결국 부메랑이 돼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독자제언

농촌마을 앞 보행자 먼저 살펴주세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첫 가을을 맞는다.

그동안 취소됐던 지역 행사와 축제들도 앞 다퉈 재개하면서 축제장은 온통 손님 맞을 분위기다.

지역행사와 축제는 가을철 행락시기와도 겹쳐 더더욱 개인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런데 농촌에서는 마을 앞을 달리는 행락차량들로 달갑지만은 않는 모양새다.

그 연유를 보니, 이런저런 축제나 행락도 좋지만 마을 앞에서만이라도 서행하고 보행자가 있으면 조심하는 기본적인 운전습관이 길들여지지 않은 운전자들 때문에 소음과 진동에 시달리고 하루에도 수없이 다니는 길에 혹여 다칠세라 늘 노심초사다.

공교롭게도 남들이 노는 행락철에 농촌 들녘은 왜 그리도 바쁜지! 굽은 허리로 도로를 횡단하기 일쑤고 다리가 온전하지 못하니 전동휠체어에 의지한 채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전 답을 누빌 수밖에 없다.

이런 농촌 현실도 모르고 "전동차는 왜 나와 가지고" 볼멘소리로 외면한 채 무시하듯 과속이라도 한다면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불안하고 속상할 수밖에 없다.

운전자들은 농촌의 이런 속사정을 헤아려 보행자를 보면 속도를 줄이고 위협을 주지 않는 간격을 유지하면서 서행하고, 보행자를 보호하겠다는 마음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연중 교통사고 통계를 보더라도 가을 영농철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느니 서로가 주의해서 나쁠 것은 없다.

운전자는 안전벨트를 본인은 물론 동승자 전 좌석까지 착용할 수 있도록 하며, 규정 속도를 초과하는 과속은 절대로 엄금해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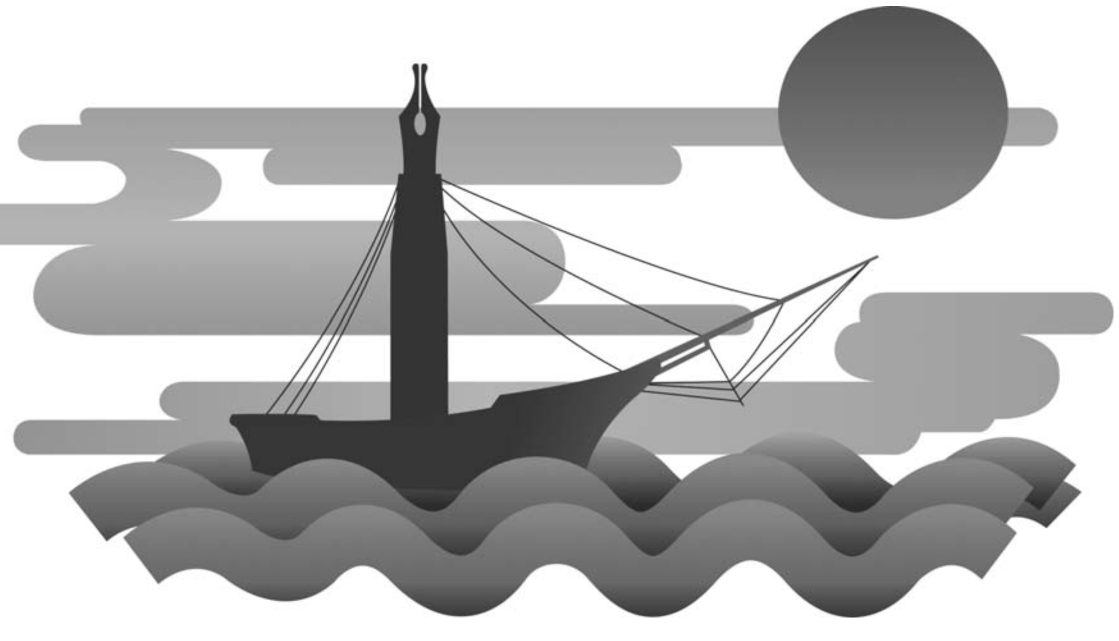
양온욱 순창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경위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전쟁 발발 7개월 만에 이지움 부모 만난 여성

지난 1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이지움에서 마리아(가운데)라는 여성이 전쟁 발발 7개월 만에 부모를 만나 눈물을 흘리며 포옹하고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